

원저

《傷寒論》厥陰病 提綱의 鍼灸學的 分經 및 定證의 運用 方法에 關한 研究

정미경 · 오세형 · 윤종화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침구학교실

Abstract

The Study on Acupuncture Operation Method of 《Sang Han Lun(傷寒論)》 Liu-Jing-Bian- Zheng(六經辯證)

- Based on the Study of Jue-Yin-Bing(厥陰病) -

Jeong Mi-kyung, O Se-hyoung and Yoon Jong-hwa

Department of Acupuncture & Moxibustion,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 Guk
University

Objectives : The following study was undertaken in order to seek the acupuncture operation method of 《Sang Han Lun(傷寒論)》 Liu-Jing-Bian-Zheng(六經辯證).

Methods : Based on the documents quoted in 《Sang Han Za Bing Lun · Xu Wen(傷寒雜病論 · 序文)》 of "Zhang, Zhong-Jing(張仲景)", the relativity of the theory of Jing-Mai(經脈) and Liu-Jing-Bian-Zheng of convalescence, and from the Liu-Jing-Bing(六經病), the origin and implication that caused Jue-Yin-Bing(厥陰病) to form was studied on the basis of acupuncture medicine publications and the commentary writing of 《Sang Han Lun》.

Results : 1. 《Sang Han Lun》 Liu-Jing-Bian-Zheng has succeeded and was developed based on Liu-Jing-Fen-Zheng(六經分證) of 《Su Wen · Re Lun(素問 · 熱論)》. In addition, the summary of Liu-Jing-Bing became the general principle of Fen-Jing(分經) and Ding-Zheng(定證) that may be applicable to Fenghan(風寒), Wenre(溫熱), Lili(疫癘) and Zabing(雜病).

· 접수 : 2006년 6월 29일 · 수정 : 2006년 7월 15일 · 채택 : 2006년 7월 15일
· 교신저자 : 윤종화, 경주시 석장동 1090-1번지 동국대학교 부속한방병원 침구과
H.P. 017-802-2624 E-mail : item0916@chol.com

2. Most commentators of 《Sang Han Lun》 in the Song, Ming and Ching Dynasties of 《Sang Han Lun》 interpreted the Jue-Yin-Bing in physiological and pathological aspects of Rong-Wei(榮衛) as the disease of the Sim Po and Liver meridian.

3. From the Liu-Jing-Bing of 《Sang Han Lun》, the region of acupuncture treatment of Jue-Yin-Bing is treated with the needle from the point of view of Bing-Zheng-Lun-Zhi(辨證論治) with the basis of the important region of acupuncture of the Sim Po of meridian and Liver of meridian.

Key words : 《Sang Han Lun》, Liu-Jing-Bian-Zheng, summary of Liu-Jing-Bing. Jue-Yin-Bing

I. 緒 論

先秦의 馬王堆 出土 醫書 중 《足臂》 《陰陽》 및 《脈法》에서 經脈의 路線, 經脈病候, 經脈診斷 및 各 刺絡의 治療法이 最初로 記載되어 있고¹⁻³⁾, 漢代의 《靈樞》에서는 經脈에 解剖·生理·病理理論을 導入하여 循環路線의 確立, 經脈病候의 擴大, 三陰三陽에 따른 人迎寸口脈診法 및 鍼을 중심으로 灸, 刺絡, 藥物 등을 利用하여 治療하는 經絡學說이 樹立되었다⁴⁻⁵⁾.

《素問》 《靈樞》에서 鍼灸學과 醫論의 兩面에서 基礎的인 成就를 바탕으로, 東漢의 《難經》에서 脈學, 經絡, 臟腑, 疾病, 穴位 및 鍼法을 體系的으로 論述하였다. 특히 獨取寸口診脈法, 左腎右命門說, 奇經八脈, 五輸·原·八會·兪募穴 및 補瀉法 등의 鍼灸에 關한 學說과 <五十八難>의 傷寒은 中風, 傷寒, 濕溫, 熱病, 溫病을 包含하는 '廣義傷寒說'을 闡發하였다⁶⁻⁸⁾.

東漢 末年에 湯液中心으로 著述된 《傷寒雜病論》은 漢末의 戰火로 逸失된 것을 晉·太醫令인 王叔和가 醫書を 收集하고 整理하여 《脈經·卷七》에서 汗, 吐, 下, 和, 灸, 刺, 水 및 火의 治法에 따라 “可” “不可”의 次例로 轉載하였고⁹⁾, 唐·孫思邈의 《千金翼方·卷九·卷十》을 바탕으로 唐本傷寒論으로¹⁰⁾, 北宋·林億 등은 校正醫書局의 校訂을 거쳐 定本인 《宋本傷寒論》과 《金匱要略》으로 分卷하여 傷寒學術 發展의 基礎를 마련하였다¹¹⁾.

金·元代는 龐安時的 《傷寒總病論》과 朱肱의 《類證活人書》를 中心으로 八綱辨證을 통하여 '辨證思想'이 重視되었고, 許叔微 《傷寒發微論》에서 '三綱鼎立'學說이 提起되었고. 明·清代는 '錯簡重訂', 尊王(叔和)贊成(无己)을 주장하는 '維護舊論', 同

時에 '以方類證'을 위주한 '辨證論治'派등의 學術類派가 形成되어 傷寒 學術이 크게 發展하였다¹²⁾.

《傷寒論》 研究 方面에 있어서, 朱¹³⁾는 “傷寒의 治療에는 먼저 經絡을 알아야 하고 經絡을 알지 못하면 邪氣의 所在를 알 수 없다” 하였고, 呂¹⁴⁾는 “《傷寒論》의 六經病은 《素問·熱論》을 本으로 새롭게 發展시켰다” 하였고, 柯¹⁵⁾는 “六經提綱과 六經地面說을 提唱하여 《傷寒論》의 六經과 《素問·熱論》의 六經이 모두 辨證論治의 綱領으로 相當한 差異가 있다.”고 하였으며, 山田¹⁶⁾은 “宋 以後의 《傷寒論》 文獻 및 醫學的인 研究 主題는 《傷寒論》 屬에 內藏된 醫學的 方法 즉 六經辨證으로 불리는 診斷 및 治療의 方法을 確立하는 過程이었다”고 主張하였다.

이에 著者는 《傷寒論》 六經辨證의 鍼灸學的 運用方法을 探索하기 위하여 《傷寒雜病論·序文》¹⁷⁾에서 引用한 文獻을 根據하여 經脈의 理論 및 病候를 六經病과의 相關性을 찾고, 六經病 中에서 厥陰病 提綱^{14),18)}이 形成된 淵源 및 厥陰病 提綱의 鍼灸學的 分經 및 分證의 方法을 研究하여 報告합니다.

II. 本 論

1. 三陰三陽의 意義

陰陽은 觀物取象으로 分類하는 方法이며 《素問·陰陽離合論》 “日爲陽 月爲陰”이라 하여 日月을 陰陽으로 나누고 《素問·天元紀大論》 “陰陽之氣各有多少, 故三陰三陽也”이라 하여 氣의 多少가 分類의 基準이 되며 陽分은 太陽, 陽明 (兩陽合明, 兩火并合) 少陽으로 多, 少, 盛의 三極이 形成되고, 陰分

은 太陰 少陰 厥陰 (兩陰交盡, 至絶作朔晦)으로 多, 少, 衰變의 三極이 形成되고, 《素問·至眞要大論》에서 “氣有多少, 異用也”라 하여 氣의 多少에 따라 三陰三陽은 機能에 差異가 생긴다고 하였다.

先秦에서 ‘三陰三陽’說의 史料는 馬王堆 出土 醫書 중 《足臂十一脈灸經》과 《陰陽十一脈灸經》에서 有力한 證據를 提供하고 있으며, 馬¹⁹⁾는 “兩部 古灸經은 《黃帝內經》의 祖本이며, 泰陽(或鉅陽), 少陽, 陽明, 少陰, 希陰(或厥陰)으로 命名된 經脈이 있고 最初로 三陰三陽의 述語가 既述되어 있다.” 하였다.

《黃帝內經》의 三陰三陽은 天時變化, 天人關係, 臟象, 經絡, 氣血, 形志, 診療, 脈象, 病能 및 標本 등의 醫論에 貫通되어 있으며¹⁸⁾, 《黃帝內經》과 中古 醫籍 가운데 不同한 三陰三陽의 29種 9大類의 經脈 生理特證 및 層次類 氣血盛衰類, 氣血多少類, 病理反應類, 脉診部位類, 日旬年의 週期類의 過去·現在·未來 및 晝夜變化를 포함하는 天人地의 相互交感, 自然界의 氣候變化에 따른 歷法 및 臟腑經絡의 定性·定位에 따른 氣血盛衰의 變化 등은 모두 三陰三陽을 經絡로 編成되지 않는 것이 없다고 하였다²⁰⁾.

《素問》과 《靈樞》에서 言及된 經絡의 ‘三陰三陽’說에 關하여서는 《素問·皮部論》에는 皮部를 三陰三陽의 經脈을 基本으로 分區하고 外邪가 皮部에서 臟腑로 이르는 傳變을 論述하였고, 《素問·陰陽離合論》에는 光明(心臟)을 중심으로 上下 前後 內外로 區分하여 三陽의 太陽, 陽明, 少陽의 部位 및 三陰의 太陰, 少陰, 厥陰의 部位를 分區하였다.

그리고 《素問·陰陽離合論》과 《素問·皮部論》에는 陰陽之氣의 多少에 따른 三陰三陽 經脈의 機能을 開·闔·樞로 說明하였고, 《靈樞·根結》에는 開·闔·樞의 病理와 證候를 既述하고 있다. 또한 《靈樞·經脈》에서는 手足三陰三陽經의 循環理論을 確立하였고, 《素問·熱論》에는 三陰三陽의 經絡으로 外感 熱性病의 傷寒症狀을 六經으로 分類한 六經分證, 并病 및 死證에 關하여 論述하고 있다.

한편 陰陽은 宇宙萬物을 對象으로 하는 兩大分類이고 三陰三陽은 事物의 屬性에 對한 分類로 各은 三으로 分類하는 方式이며 經絡의 三陰三陽說은 “三陰三陽의 開闔樞說”과 “三陰三陽의 外感熱病說”의 二種類가 있다²⁰⁾.

“三陰三陽의 外感熱病說”을 六經傳變으로 論述한 《素問·熱論》과 外感熱病을 三陰三陽의 概念으로 傳變, 診斷 및 治療를 體系를 갖춘 著作인 《傷寒論》

에 關하여 姜⁸⁾은 “《素問·熱論》의 六經分證은 《傷寒論》의 六經辨證의 淵源이며, 《傷寒論》의 六經辨證은 《素問·熱論》의 六經分證을 基本으로 하여 深化하고 發展시켜 體系化되었다” 하였고, 《傷寒論譯釋》²¹⁾ (이하 《譯釋》으로 簡稱)은 “《素問·熱論》의 六經은 分證의 綱領이고 《傷寒論》의 六經은 辨證의 綱領이다”고 하였다.

醫史學的으로 살펴보면 三陰三陽은 馬王堆 漢墓 帛書에 처음 轉載되어 있고, 《黃帝內經》에서 三陰三陽의 理論은 더욱 發展되고 完備되었다. 이후 《傷寒論》에서 그 理論 및 臨床應用에 飛躍的으로 發展하게 되었고 理·法·方·藥에 貫穿되는 辨證論治의 診斷 및 治療方法이 形成되었다¹⁸⁾

2. 厥陰病²²⁻²⁴⁾

(1) 厥陰經의 生理

厥陰은 “陰盡陽生” 후 “陰陽消長”으로 陽氣의 始生段階이며 陰陽終始의 樞轉作用이 있으므로 《素問·陰陽類論》에서 “朔晦 獨使”로 比喩하였다.

《素問·六味旨大論》에서 厥陰의 上에는 風氣를 治하고 中에는 少陽이 見하여 厥陰은 標가 되고 風이 本氣가 된다 하였고, 《素問·至眞要大論》에서 言及한 標本 中氣從化의 觀點에서 보면 厥陰은 標와 本을 따르지 않고 中氣 즉 少陽을 따르니 木從火化하여 風이 火를 따라 氣化하게 되며, 足厥陰肝經은 風木에, 手厥陰心包經은 相火에 屬하나 子從母化하여 風氣가 主管하며, 足厥陰肝經은 足少陽膽에, 手厥陰心包經은 手少陽三焦에 絡하니 厥陰經의 風氣 中에는 相火가 包含되어 있다.

肝은 腎陰과 胃液의 끊임없는 慈養을 得한 然後에 正常的인 機能活動을 維持할 수 있으며 內寄相火의 根源이 腎中元陽이므로 厥陰之氣는 先後天의 氣를 稟受한 것이며, 肝은 疏泄과 藏血을 主宰하므로 血脈과 胃腸의 積滯를 疏通하고 血液의 運行을 促進 調定한다. 또한 肝에 깃들여 있는 相火는 肝의 疏泄 機能을 도울 뿐 아니라 陽氣의 敷布와 陰寒을 除去하여 臟腑를 溫和하게 하는 作用을 하며, 心包는 相火의 發揮處로서 陰血의 母가 되므로 厥陰之氣는 肝과 相火機能의 綜合的인 表現이다.

厥陰은 陰分之裏가 되며 手厥陰心包經은 神明之 守衛와 傳達의 機能을 主管하고, 足厥陰肝經은 魂의 內藏과 血液의 內涵을 主管하므로 “闔”에 該當한다.

(2) 厥陰經의 病理

兩陰交盡은 厥陰을 一陽來復은 少陽을 일컫는 것으로 《素問·六味旨大論》에 “少陽之上 火氣治之中見厥陰. 厥陰之上 風氣治之中見少陽”하여 厥陰은 肝을 主하며 風木之臟이 되고 少陽은 膽을 主하며 相火가 居하므로 兩經은 表裏가 相應하고 臟腑가 相合한다.

肝에 內寄한 相火는 少陽의 生氣가 根本이 되며, 相火가 內鬱하면 厥陰病이, 相火가 外로 發泄하면 少陽病이 되며, 厥陰이 標本을 따르지 않고 中氣를 따르는 것은 厥陰 風木之氣는 少陽之火를 따라 外達됨을 意味하며 厥陰의 病變은 少陽樞轉을 따라 解消된다.

厥陰病은 寒熱錯雜 厥熱勝復의 陰陽消長이 主된 病機이며 消渴, 氣上撞心, 心中疼熱 飢而不欲食 食則吐蚘 厥熱勝復 乾嘔 吐涎沫 下之利不止 頭痛 등으로 나타날 수 있고, 手足厥陰經의 病候는 相火가 熾盛하거나 鬱而化火하여 噎乾 胸滿 心中憺憺大動 煩心 心痛 등이 나타나고, 肝의 疏泄機能이 失職되어 氣機가 不利해지고 升降이 失調되어 嘔逆 殭泄 등의 證候가 나타나며 兩者를 比較하면 相互 類似點이 많다.

그러나 《素問·熱論》 “六日 厥陰受之 厥陰脉循陰器而絡于肝 故煩滿而囊縮”하였고, 《素問·診要經終論》 “舌卷 卵上縮” “中熱噎乾 … 心煩” 하였고, 《靈樞·經脈》 “脣清 舌卷 卵縮” 등의 記述이 있고 厥陰症의 重要症狀으로 言及하고 있다. 그러나 《傷寒論》 중에서는 이러한 症狀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內經》 중에 言及한 病症이 《傷寒論》에 모두 反映된 것은 아니며 《傷寒論》 중에서 言及하고 있는 것은 《內經》 중에 記述된 經絡 臟腑의 病症 중 에서 一部分임을 알 수 있다.

3. 厥陰病 提綱의 淵源

《傷寒論》의 제326조 “厥陰之爲病, 消渴, 氣上撞心, 心中疼熱, 飢而不欲食, 食則吐蚘. 下之利不止.” 은 厥陰病의 提綱이 된다. 此條는 《注解傷寒論·辨太陰脉證并治法上第五》²⁵⁾에서 厥陰病의 3條門으로 記載하였고, 《傷寒論條辨·辨厥陰病脉證并治大意·并治上篇第一》²⁶⁾에서 厥陰病 提綱의 雛形을 隱匿하고 있으며, 《尚論·厥陰經証治大意·厥陰經全篇》²⁷⁾에서 厥陰病의 證과 脈의 要綱으로 說明하였고, 《傷寒來蘇集·傷寒論注·太陰脉證》²⁸⁾에서 裏陰證의 此條를 厥陰病 提綱이 된다 하였고, 《醫宗金

鑑·訂正中景全書·傷寒論注·辨厥陰病脈證并全篇》²⁹⁾에서 厥陰病의 脈·證을 包括하는 厥陰病의 概括로서 此條의 位置를 格上시켰다. 陳³⁰⁾은 “厥陰病의 脉과 經氣를 言及한 經脈病으로 『厥陰經脈經氣說』로 標本中氣의 從化理論과 開闔樞의 氣化學說로 說明하고 厥陰病의 總綱이다.” 하였다.

《傷寒來蘇集·傷寒論注·全論大法第一》²⁸⁾ “仲景作論大法, 六經各立病機一條, 提揭一經綱領, 必擇本經至當之脉證而表章之.” 하여 “六經提綱說”을 提唱하였고 “六經病의 提綱은 傷寒과 雜病을 合한 論旨이다.” 하였고, 《傷寒貫珠集·太陽正治法·太陽病脉證三條》³¹⁻³²⁾에서 “... 故柯氏目爲六經之綱領, 而此則爲太陽之綱領也. ... 學者當參合他條, ...” 하여 六經의 各條는 各經의 脈과 證을 既述하고 있다는 “六經提綱說”을 認定하고 提綱에는 不足한 점이 있어 他條를 合參하여야 한다 하였고, 《傷寒約編·厥陰證提綱》³³⁾에서 “厥陰病 提綱은 風寒, 溫熱, 疫癘 및 雜病을 無論하고 厥陰經으로 罹患되는 症狀를 分類하는 分經 및 分證의 基準이 된다” 하였다.

4. 厥陰病 提綱의 研究

(原文) 厥陰^① 之爲病, 消渴^②, 氣上撞心, 心中疼熱^③, 飢而不欲食, 食則吐蚘^④. 下之利不止^⑤. (326)
尺寸俱微緩^⑥ 者 厥陰受病也. 當六七日發, 以其脉循陰器, 絡于肝, 故煩滿而囊縮. (91)

(解釋) 厥陰에 病이 들면 渴症이 생기고 氣가 逆上하여 가슴속으로 치밀어 오르고 배가 고프면서도 먹으려 하지 않고 飲食을 먹으면 蛔蟲을 吐하고 泄瀉가 멎지 않는다.

(註解) ① 厥陰: 吳²⁹⁾는 “厥陰은 肝經이다” 하였고, 楊²²⁾은 “厥陰은 手厥陰心包經과 足厥陰肝經을 包含한다” 하였고, 姜⁸⁾은 “厥陰은 手厥陰心包經과 足厥陰肝經을 包含하며, 《傷寒論》의 厥陰은 足厥陰肝經에 重點을 두고 있다” 하였고, 黃³⁴⁾은 “《傷寒論》에서 手經과 足經은 同氣相求하며 足經은 身體에서 分豁된 部位가 크고 길며 氣가 旺盛하여 足經의 病이 深하고 手經의 病은 經하므로 足經으로 言及한 緣由이다” 하였다.

《譯釋》²¹⁾에서 “厥陰은 陰盡陽生의 臟으로 少陽과 表裏가 되고 風木을 稟하고 內로는 相火가 있고, 下로는 寒水와 連繫되어 乙癸同源이 되어 本이 되

고, 上으로 君火와 連繫하여 子母相應이 되어 表가 되며 … 厥陰病은 大概가 寒熱錯雜證으로 厥熱交代 替發作證과 上熱下寒證이며, 《諸病源候論》 “陽并于上則上熱 陰并于下則下冷” 하여 厥陰病 提綱의 消渴, 氣上撞心, 心中疼熱은 上熱證이고, 飢而不欲食, 食則吐蚘, 下之利不止는 下寒證이다” 하였고, 陣³⁰⁾은 “厥陰의 主關, 藏而不泄, 位置는 脇下의 小腹과 心下의 臆中이며, 肝과 心包絡이 臟이며 … 頭髮 眼目 爪甲 筋血 陰氣 舉丸을 主管한다” 하였다.

② 消渴 : 成²⁵⁾은 “邪가 太陽에서 太陰으로 傳變되면 腹滿 噎乾하고 渴症이 없고, 少陰으로 傳變하면 口燥 舌乾하고 渴症이 있으며, 厥陰으로 傳變하면 消渴證이 나타나며 深熱하여 飲水는 많고 小便은 적다” 하였고, 龐²⁶⁾은 “厥陰은 木에 屬하고 少陰은 水에 屬하며 邪가 少陰에서 傳來되어 厥陰에 邪熱이 甚하면 子能令母虛가 되어 少陰이 引水하여 自救한다” 하였고, 張³⁵⁾은 “厥陰消渴證은 舌盡紅赤하고 厥冷脈微하고 渴症이 심하다” 하였고, 程³⁶⁾은 “厥陰渴症은 渴이 解消되면 復發하지 않고, 厥陰에 邪熱이 極盛하여 胃腑로 攻入하면 消渴證이 發生하는 것이며, 厥陰에서 緣由한 消渴이므로 厥陰症에 屬하게 된다” 하였고, 姜⁸⁾은 “厥陰은 肝臟이며 內에는 相火가 寄하여 있고 疏泄의 機能이 있으며, 厥陰이 病이 되면 相火가 熾盛하고 疏泄이 失常하면 肝火가 熾盛하여 津液을 消灼하여 消渴症이 나타난다” 하였다.

③ 氣上撞心 心中疼熱 : 成²⁵⁾은 “木은 火를 生하며 肝氣는 心으로 通하며 肝에 客熱이 있으면 氣上撞心 心中疼熱한다” 하였고, 喻²⁷⁾는 “肝은 木에 屬하여 母가 되고 心은 火에 屬하여 子가 되며 母盛하면 子盛하여 氣撞心하고 疼熱하며 邪가 心의 浮廓까지는 轉入하지 않는다” 하였고, 柯²⁸⁾는 “厥陰 經脈은 上膈貫肝하며 氣旺하여 上撞心하고 氣有餘하여 火가 發生하여 心中疼熱한다.” 하였고, 惲²¹⁾은 “心中疼熱과 飢而不欲食은 胃의 病이다” 하였고, 姜⁸⁾은 “厥陰은 肝臟이며 內에는 相火가 寄하여 있고 疏泄의 機能이 있으며, 厥陰이 病이 되면 相火가 熾盛하고 疏泄이 失常하고 肝氣가 橫逆하여 上衝하면 氣上撞心하고, 肝火犯胃하면 心中疼熱하는 上熱의 症狀이 나타난다” 하였다.

④ 飢而不欲食 食則吐蚘 下則利不止 : 成²⁵⁾은 “邪가 厥陰으로 傳變되어 傳經을 마치면 邪가 胃로 들어와 客熱이 있으면 飢而不欲食하고 胃中の 蛔蟲로 因해 飲食을 못 먹고 衄새를 맡으면 蛔蟲이 動하며, 胃虛에 下法을 施行하면 厥陰 風木의 邪가 犯胃하여

吐 下가 그치지 않는다” 하였고, 喻²⁷⁾는 “厥陰의 邪는 陽明으로 傳變되면 胃氣는 易動하여 食則吐 下則利不止한다” 하였고, 柯²⁸⁾는 “厥陰 經脈은 上膈貫肝하며 氣有餘하여 발생한 火가 能히 飲食을 消化시키므로 飢하며, 肝脈은 挾胃하며 肝氣가 旺하여 胃口을 閉塞하여 不欲食한다” 하였고, 姜⁸⁾은 “厥陰은 肝臟이며 內에는 相火가 寄하여 있고 疏泄의 機能이 있으며, 厥陰이 病이 되면 相火가 熾盛하고 疏泄이 失常하고 火盛하면 易飢하고 木不疎土하면 飢而不欲食하고, 肝熱上炎하여 火가 敷布를 失調하면 脾虛腸寒하며 蛔蟲은 喜溫惡寒하고 蛔蟲은 食氣를 따라 吐出하므로 下寒을 알 수 있다” 하였고, 惲²¹⁾은 “心中疼熱과 飢而不欲食은 胃의 病이며, 下之利不止는 腸病 혹 胃腸病이며, 陽明과 太陰에 屬하지 않는 것은 風을 兼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였다.

⑤ 微緩 : 《傷寒論·傷寒例第三》 “尺寸俱微緩者 厥陰受病也.” 하였고, 楊³⁷⁾은 “沈診法은 重手하여 筋骨部位에서 按診하며 裏證의 虛實을 察候하며 尺寸이 俱沈弦하면 厥陰病이며 … 沈脈의 要點은 陰陽寒熱를 決定하여 宜守不宜攻, 宜補不宜瀉에 있다” 하였다.

《傷寒論》 제326조 “厥陰之爲病, 消渴, 氣上撞心, 心中疼熱, 飢而不欲食, 食則吐蚘. 下之利不止.”의 厥陰病 提綱의 厥陰은 主肝하고 膽은 肝內에 있어 厥陰熱症은 모두 少陽相火의 內發이며, 少陽厥陰은 同一한 相火이며, 相火가 內로 入하면 厥陰病이고, 相火가 表로 出하면 少陽病이 된다. 少陽咽乾은 厥陰消渴의 機微이고, 胸脇苦滿은 氣上撞心の 徵兆이고, 心煩은 邪熱의 初期이며, 不欲食은 飢而不欲食의 根이고, 喜嘔는 吐蚘의 初期이다. 따라서 少陽病이 不解하여 厥陰病으로 轉屬되면 危症이 되고, 厥陰病이 衰하여 少陽病으로 轉屬하면 輕症으로 治癒된다.

太陰과 厥陰은 모두 裏證을 爲主로 提綱이 되며 太陰은 陰中之至陰으로 不渴하고, 厥陰은 陰中之陽으로 主熱하여 消渴이 있고, 太陰은 濕土를 主하여 氣陷下하여 濕邪가 胃部로 入하면 腹痛自利하고, 厥陰은 相火를 主하고 火病은 氣가 逆上하여 火가 心으로 入하여 心中疼熱하며, 太陰과 厥陰이 同一하게 食不下하여도 太陰은 腹滿하고 厥陰은 飢하는 이러한 理由는 屬土 屬木의 差異에서 緣由한다.

太陰은 開機의 失常으로 本來 下利하며 開折하여 胸下痞硬하는 것은 開折反闔이며, 厥陰은 闔機의 失常으로 氣가 逆上하고 反開하여 下利하는 것은 闔折

反開이다.

《傷寒論》의 厥陰病 提綱은 風寒, 溫熱, 疫癘 및 雜病을 包含하여 厥陰經으로 罹患되는 症狀을 分類하는 分經 및 定證의 綱領이 된다.

III. 考 察

近年에 發掘된 醫學方面의 帛書, 漢簡 및 漢牘 中에서 先秦의 《足臂》, 《陰陽》 및 《脈法》에서 經脈의 路線, 經脈病候, 十二經脈脈診 및 灸 刺絡의 治療法이 最初로 記載되어 있으며¹⁹⁾, 《靈樞·經脈》에서 十二經脈의 循環路線, 經脈病候 및 人迎·寸口脈診을 運用하였고, 《難經》에서 手太陰의 太淵穴 附近에서 五臟六腑를 診斷하는 六部定位脈診의 寸口脈診法에 依한 五輸穴을 運用하는 方法論을 提示하고 있다.

戰國 後期の 《五十二病方》에는 傷寒方面의 處方이 없고, 前漢의 《居延漢簡》에는 一個의 傷寒發汗 治方이 있고, 東漢 初期의 《武威醫藥簡牘》의 《治百病方》에는 辨證論治의 雛形이 形成되어 外感傷寒의 處方에 對한 前承後啓의 役割을 하였고^{12,38)}, 東漢 末의 著名한 醫家 張仲景은 古代 여러 醫論과 다양한 經方을 參考하고 臨床 經驗이 結合되어 《傷寒雜病論》을 著述하였다.

現存하는 《素問》의 <熱論>, <平熱論>, 《靈樞》의 <熱病篇>, <寒熱病篇>, <寒熱> 등의 外感熱病의 專門의 論述, 《難經·五十八難》의 ‘廣義傷寒’說, 脈診 및 汗下法의 可·不可 등과 先秦 및 秦·漢代의 藥物知識이 總結된 《神農本草經》의 全身인 《胎臚藥論》 및 《漢書藝文誌》의 經方 등은 《傷寒論》의 著作에 撰集되고 選用된 醫學理論 및 先驗方劑의 根據를 提供하고 있다³⁸⁻³⁹⁾.

그리고 唐⁴⁰⁾은 “《漢書藝文誌》와 《鍼灸甲乙經》에 根據하여 보면 仲景의 書는 《內經》에 本을 두고 있으며, 伊尹, 扁鵲, 倉公의 湯液法을 繼承하였고 … 醫門의 仲景은 儒門의 孔子와 같은 意味가 있다”고 하였다.

최근 傷寒論에 關한 研究에 있어 姜⁹⁾은 “《素問·熱論》의 六經分證은 《傷寒論》의 六經辨證의 淵源이며, 《傷寒論》의 六經辨證은 《素問·熱論》의 六經分證을 基本하여 深化하고 發展시켜 體系化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山田¹⁶⁾은 “宋 以後의 《傷寒論》의 文獻 및 醫學의 研究의 主題는 《傷寒論》 屬에 內藏된 醫學의 方法 즉 六經辨證으로 불리는 診斷 및 治療의 方法을 確立하는 過程이었다”고 하였고, “戰國後期の 著作으로 보이는 馬王堆 出土 醫書의 《十一脈灸經》과 《五十二病方》을 보면 藥物療法과 鍼灸療法은 각각 獨立의 發展하였고 … 解剖學의 發達, 循環器와 內臟 및 經絡과 臟腑의 連繫는 藥物療法과 鍼灸療法의 兼用할 수 있는 理論의 基礎的인 道路가 創立되었고 … 《傷寒論》은 經脈學說에서 發展된 脈診法을 藥物療法에 導入하여 體系化하였다” 하여 《傷寒論》이 經脈學說과의 理論的 連貫性이 있음을 論述하였고, 金²³⁾은 “《傷寒論》의 六經病은 三陽症과 三陰症을 概括한 것으로 基本的으로 十二經脈의 手足同名經의 病候를 精簡, 補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傷寒論》의 六經構成과 《內經》의 構成體系에는 첫째 太陽病中에 手太陰經과 肺臟病證이 包含되어 있고, 둘째 太陰病에서는 足太陰經과 脾臟病證 뿐이고, 小腸은 陽明에 隸屬시키는 差異점이 있다” 하여 《傷寒論》의 六經病과 《內經》의 經絡體系와의 連貫성과 差異點을 說明하였다.

論者는 六經病의 脈·證의 關係에 對한 考察은 經脈病候와 寸口脈을 相互補完하는 鍼灸療法의 研究에 必要하다고 생각되며, 《傷寒雜病論·序文》에서 引用한 文獻을 根據하여 經脈의 理論 및 病候를 六經病과의 相關성을 찾고, 六經 가운데 厥陰病 提綱이 形成된 淵源과 意義 및 厥陰病 提綱을 利用한 鍼灸學의 分經 및 分證의 可能性을 研究하였다.

宋, 明 및 清代 《傷寒論》의 注釋家들은 제326조 “消渴, 氣上撞心, 心中疼熱, 飢而不欲食, 食則吐衄. 下之利不止.”를 人體 內部를 主管하는 足厥陰肝經의 病으로 相火의 鬱滯로 因한 水火升降의 失調로 上焦 中焦 下焦의 生理·病理의 面에서 註釋하고 있으며, 柯²⁸⁾는 “仲景 六經의 總綱은 《素問·熱論》과 不同하고 厥陰은 相火鬱滯로 因한 裏證에 重點을 두고 있다” 하였고, 西³³⁾는 “此條를 風寒, 溫熱, 疫癘 및 雜病을 無論하고 厥陰經에 病이 罹患되는 症狀의 分經·定證의 綱領이 된다” 하였다.

單⁴¹⁾은 “《傷寒論》은 臟腑 經絡 및 氣化學說이 融合되어 辨證論治의 體系가 貫通되어 있다” 하였고, 楊²²⁾은 “《傷寒論》의 六經氣化의 實在은 手·足 三陰三陽經의 經絡氣化學說의 反映으로 … 標本中氣의 從化理論과 開闢樞의 氣化學說은 傷寒六經氣化의

整體理論이며 縱橫으로 傷寒 六經間의 相互關係를 闡述하고 있다” 하였고, 吳⁴²⁾는 “用藥은 《傷寒論》의 六經分証으로 治病하고, 用鍼은 《奇經八脉》의 八脉交會八法으로 治病한다” 하였고, 또 “鍼灸와 藥物의 治病의 原理는 一致하며, … 用藥은 三因(外因, 內因, 不內外因)을 區分하여 治療하고, 用鍼은 三因의 區別없이 何經의 寒熱虛實을 살피 施術을 한다” 하였다.

厥陰病 提綱의 “消渴, 氣上撞心, 心中疼熱, 飢而不欲食, 食則吐蚘. 下之利不止.”의 條文을 柯¹⁵⁾는 “腹을 三陰의 夾界로 삼아 「腹由肝上膈至心, 從脇肋下及于小腹宗筋」을 厥陰地面(六經地面說)으로 새롭게 解釋하고, 厥陰은 裏部를 主管하며 <陰陽離合論> “厥陰主關”으로 厥陰病은 相火의 熾盛으로 因한 上焦 中焦 및 下焦의 闔折反開하여 上熱下寒의 症狀이다” 하였다.

姜⁸⁾은 “厥陰肝臟은 疏泄作用으로 脾胃의 受納運化와 情志調節하고, 또 內로는 相火가 깃들여 있어 人體의 上下升降과 相火의 內外出入의 氣機를 極大化하며 厥陰肝臟의 機能이 失常하면 厥陰의 陰陽氣의 升降紊亂, 肝氣橫逆으로 上焦에 火鬱하여 膈胃有熱, 脾臟虛寒의 上熱下寒證, 厥陰陽氣의 內外不通하고 肝氣失疎하여 相火內閉하여 陽不外達의 證, 手足厥逆證 등이 나타난다” 하였다.

한편 《傷寒論》 六經辨證을 鍼灸學에서 運用하는 方法은 三陰三陽經의 經絡辨證⁴³⁾과 《傷寒論》의 研究方法 중에서 辨證論治派¹²⁾의 “分經論證”의 條門에 따른 針灸處方을 構成하는 方法과 “以方類證”의 方劑 運用法에 따라 鍼灸處方을 構成하는 方向으로 追究되고 있으며, 高⁴⁴⁾는 《傷寒論》의 “以方類證”으로 六經病의 各 處方의 方解와 旁通하는 穴位을 選擇하여 針灸療法를 提示하였고, 單³⁸⁾은 《傷寒論》의 “分經論證”으로 六經病의 各 條文에 鍼灸處方을 構成하였다.

19C 末葉의 李⁴⁵⁾는 “《傷寒論》을 爲主로 金元四大家 및 明代의 醫家들의 醫論을 窮究하여 四象人의 臟腑性理에 따른 生理 病理 診斷 및 治方의 理致

를 論述한 著述인 《東醫壽世保元》에서 《傷寒論》의 厥陰病·陽明病·少陽病·厥陰病·少陰病·厥陰病은 病證의 名目이며, 太陽人·少陽人·太陰人·少陰人은 人物의 名目으로 兩者의 關係를 混同하지 않도록 깊이 洞察하여야 한다” 하였고, 《傷寒論》의 六經病 중에서 三陰病證은 少陰人病證, 少陽病病證은 少陽人病證, 太陽病病證과 陽明病病證은 少陽人·少陰人·太陰人의 病證에 모두 있다하여 歷代 《傷寒論》 研究의 主題인 症狀分類 中心의 六經辨證에서 사람(四象人)中心의 八種類의 臟腑病理論을 中心으로 하는 症狀分類로 轉換하는 契機가 되는 醫論을 提唱하였다.

向後 鍼灸療法의 研究方向도 《傷寒論》의 六經分證에 따른 症狀中心의 針灸治療 혹은 方劑에 따른 針灸處方의 構成하는 方法에서 사람(四象人)의 臟腑性理에 差異에 따른 鍼灸療法의 研究로 方向轉換이 必要할 것으로 생각된다.

IV. 結 論

《傷寒論》 厥陰病 提綱이 形成된 淵源 및 厥陽病 提綱의 鍼灸學的 分經 및 定證의 運用 方法을 研究하여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傷寒論》의 六經辨證은 《素問·熱論》의 六經分證을 基本으로 하여 繼承하여 發展되었다.
2. 宋, 明 및 清代 《傷寒論》 注釋家들은 厥陰病 提綱을 厥陰經에 相火의 熾盛으로 闔折反開의 上熱下寒의 水火升降의 失調로 因한 生理·病理의 側面에서 注釋하였다.
3. 厥陰病 提綱은 風寒, 溫熱, 疫癘 및 雜病으로 因해 厥陰經으로 罹患되는 症狀를 分類하는 分經 및 定證의 綱領이 된다.

V. 參考文獻

1. 이정훈, 윤중화. 足臂十一脈灸經에 關한 研究. 대한침구학회지. 1998; 15(1): 181-200.
2. 이정훈, 윤중화. 馬王堆 出土 醫書 중 陰陽十

Table 1. 厥陰病의 上焦 中焦 下焦의 症狀

部位	厥陰病의 上焦, 中焦 下焦의 症狀
上焦	氣上撞心, 心中疼熱, 消渴口爛, 咽痛喉痺
中焦	手足厥冷, 脉微欲絕, 飢而不欲食, 食則吐蚘
下焦	熱痢下重, 或便膿血

- 一脈灸經에 관한 研究. 대한침구학회지. 1996 : 16 (2) : 139-179.
3. 서용원, 윤중화, 김갑성. 馬王堆 出土 醫書 中 《脉法》에 관한 研究. 대한침구학회지. 2002 : (19) 1 : 210-224.
 4. 황민섭, 손성철, 배대영, 김갑성, 윤중화. 古代 經脈病症體系에 있어 “是動則病”과 “是主某所生病”에 관한 研究. 대한침구학회지. 2002 : (19) 2 : 14-27.
 5. 신광순, 장준혁, 윤중화. 《靈樞·經脈》의 寸口人迎脈診에 관한 研究. 2002 : 9(1) : 210-214.
 6. 凌耀星. 難經校注. 北京 : 人民衛生出版社. 1991 : 146-150.
 7. 葉霖. 難經正義. 上海 :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1 : 94-102.
 8. 姜建國, 李樹沛. 傷寒析疑. 北京 : 科學技術出版社. 1999 : 7, 21-23, 327-331.
 9. 福州市人民醫院. 脉經校釋. 北京 : 人民衛生出版社. 1984 : 344-485.
 10. 錢超塵 校注. 唐本傷寒論. 北京 : 中國中醫藥出版社. 1994 : 1-332.
 11. 劉渡舟. 傷寒論臨證指要. 北京 : 學苑出版社. 1999 : 2-4.
 12. 葉發正. 傷寒學術史. 武昌 : 華中師範大學出版社. 1995 : 9-14, 90-130.
 13. 朱肱 著. 임진석 옮김. 活人書. 서울 : 아티진. 1998 : 54.
 14. 陳明·劉, 燕貨·張保偉 撰次整理 : 劉渡舟傷寒臨證指要. 北京. 學苑出版社. 1998 : 17-22, 212-217.
 15. 柯琴. 傷寒來蘇集. 上海 :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6 : 7, 162-166, 178-198.
 16. 山田慶兒 著. 전상운, 이성규 옮김. 中國의학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서울 : 사이언스북스. 2002 : 178.
 17. 葉橘泉 收藏 : 古本康平傷寒論. 長沙 :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88 : 1-3.
 18. 李心機. 《傷寒論》疑難解讀. 北京 : 人民衛生出版社. 1999 : 40-41, 51-52, 69-76.
 19.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 12, 321-652.
 20. 王玉川. 運氣探秘. 北京 : 華夏出版社. 1995 : 6-9, 48-51.
 21. 南京中醫學院傷寒教研組 編著. 傷寒論 譯釋. 上海 :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0 : 2. 1022-1024.
 22. 揚力. 中醫運氣學. 北京 : 北京科學技術出版社. 1995 : 95-99, 203-206.
 23. 金丁雨. 經絡學說을 통한 經脈病候에 관한 研究. 서울 : 東國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94 : 107-112, 117.
 24. 唐容川. 唐容川醫學全書·傷寒論淺注補正. 北京 : 中國中醫藥出版社. 2000 : 204, 224.
 25. 成无己. 注解傷寒論. 北京 : 人民衛生出版社. 1966 : 54, 169.
 26. 龐有執. 欽定四庫全書 子部五 醫家類·傷寒論條辨. 서울 : 大星出版社. 1995 : 775-782.
 27. 喻嘉言. 喻嘉言醫學全書·尚論. 北京 :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 85-86.
 28. 柯琴. 傷寒來蘇集·傷寒論注. 上海 :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6 : 7, 103, 143, 195-198.
 29. 吳謙 等編. 醫宗金鑑. 北京 : 人民衛生出版社. 1996 : 10, 179, 203, 253-254.
 30. 陳恭薄. 近代中醫珍本集·傷寒論章句. 浙江科學技術出版社. 1994 : 334-335.
 31. 尤怡. 傷寒貫珠集. 北京 : 中醫古籍出版社. 1998 : 2-3.
 32. 沈金鰲. 沈金鰲醫學全書·傷寒論綱目. 北京 :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 614-619.
 33. 徐大椿. 徐大椿醫學全集(上冊)·傷寒約編. 北京 : 人民衛生出版社. 1988 : 807, 918.
 34. 黃元御. 黃元御醫書全集·傷寒說意. 北京 : 人民衛生出版社. 1990 : 539-541.
 35. 張卿子. 中國醫學大成(二)·張卿子傷寒論. 北京 :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 379.
 36. 程國彭. 醫學心悟. 天津 : 天津科學技術出版社. 2000 : 74-75.
 37. 楊璠. 傷寒瘟疫條辨. 北京 : 人民衛生出版社. 1986 : 7-8.
 38. 班固 著, 李世烈 解譯. 漢書藝文誌. 서울 : 자유문고. 1995 : 306-321.
 39. 從春雨. 敦煌中醫藥全書. 北京 : 中醫古籍出版社. 1994 : 114, 116-125.
 40. 唐容川. 唐容川醫學全書·傷寒論淺注補正. 北京 : 中國中醫藥出版社. 2000 : 183.
 41. 單玉堂. 傷寒論鍼灸配穴選注. 北京 : 人民衛生出版社. 1988 : 22-26, 36.

42. 施土生 校釋, 吳崑 著. 鍼方六集校釋. 北京 : 中國中醫藥出版社. 1991 : 271-316.
43. 劉孔藤. 經絡辨證概論. 廈門 : 廈門大學出版社. 1988 : 102-118.
44. 高峰, 高立山. 鍼灸心傳. 北京 : 中央廣播電視大學出版社. 1993 : 114-170.
45. 韓東錫. 東醫壽世保元註釋. 서울 : 誠理會出版社. 1967 : 117-122.